



사우디아라비아

2009년까지 30% 원유 증산에 나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여¹⁾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원유수급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원유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동 산유국 등 OPEC은 투자 부진으로 잉여 원유 공급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는 과거 국제유가가 오랫동안 배럴당 20달러

선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유생산의 채산성이 낮아짐에 따라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현재 OPEC의 잉여생산능력은 약 150만 b/d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 석유시장은 중동정세의 악화나 허리케인과 같은 기후 여건 변화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투기자금의 유입도 유가 상승 폭을 확

<표 1>

중동 주요국의 원유생산 현황

단위: 만 배럴/일(b/d)

국 가	매장량 (억 배럴)	2005년 8월 생산량	2005년 생산능력	잉여 생산능력
사 우 디 아 라 비 아	2,640	958	1,100	142
이 란	1,325	396	410	14
아 랍 에 미 리 트	978	250	258	8
쿠 웨 이 트	990	253	255	2
이 라 크	1,150	197	200	3
카 타 르	152	80	82	2

자료: MEED,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1) 2005년 9월 30일 기준 텍사스중질유(WTI) 배럴당 66.24달러, Dubai유 배럴당 56.32달러.

대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가동이 중단된 정유시설의 재가동,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OPEC의 증산 등은 어느 정도 유가 급등세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타이트한 수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원유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불균형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원유증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수출 收入 급증으로 경제성장세 두드러져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수출의 90~95%, GDP의 30~40%를 차지하여 경제의 근간으로, 2004년 중 전년 대비 22.7% 증가한 779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원유수출이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256억 달러, 1,243억 달러로 더욱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²⁾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도 2004년에 5.5%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2006년에도 각각 5.7%, 4.8%로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수입의 70~80%를 원유收入에 의존하고 있으나,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유가침체와 높은 사회복지비용 지출로 지난 20년간 재정수지 적자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유가에 힘입어 200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

고, 2005년에는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GDP의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최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부분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15% 인상한 바 있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 현황

사우디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2,640억 배럴로 전세계매장량(1조 1,886억 배럴)의 약 22%에 해당하며, 가채연수는 약 90년³⁾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 석유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석유회사 Aramco⁴⁾는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수출기업이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산업의 하류부문(Downstream)과 가스산업의 상·하류부문⁵⁾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석유산업의 상류부문(Upstream)에서는 기술 서비스 도입을 제외하고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어있으며 Aramco가 독점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에는 80여 개의 유전이 있는데 이 중 12개의 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육상유전인 Ghawar 유전(매장량 700억 배럴)의 경우 500만 b/d를 생산하는데, 이는 사우디 총산유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Safaniya 유전은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 해상유전으로서 매장량 190억 배럴, 생산량 120만 b/d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은 950만 b/d로

2) EIU, Country Report, 2005. 9.

3) Ali al-Nuaimi 석유부 장관은 채굴기술 발달로 2,000억 배럴의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4) 국내 원유의 98%를 독점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약 54,000명임.

〈표 2〉 사우디의 원유 관련 주요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확인 매장량 (억 배럴)	2,635	2,617	2,618	2,619	2,640
생산량 (백만 b/d)	7.88	7.09	8.41	9.05	9.45
정제량 (백만 b/d)	1.74	1.74	1.74	1.74	1.74
수출액 (백만 달러)	60,139	54,439	63,485	77,895	125,614
OPEC 생산량(백만 b/d)	27.9	28.1
전세계 총수요(백만 b/d)	82.3	83.9

자료: EIU, WMRC,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OPEC⁶⁾ 쿼터인 909.9만 b/d를 소폭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서 OPEC 총산유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연간 5~12%에 달하는 기존 유전의 생산량 감소, 국제사회의 증산 압력, OPEC의 유가정책에서의 중추적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100만 b/d의 신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유전 개발을 통해 원유생산 확대에 나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원유소비국들은 사우디의 원유생산량 수준이 국제유가 상승을 완화하기에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대책을 촉구하여 왔으며, 사우디 정부는 금년 들어 원유증산 및 신규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우디의 유정탐사

굴착장치의 수는 1990년대 중반에는 20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55개, 2005년 현재 70여개로 급증하였다. Aramco는 2006년까지 약 110개의 유정탐사 굴착장치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신규 유전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 정부는 2009년까지 300만 b/d의 원유를 증산하여 총 산유량을 1,250만 b/d로 확대하고, 150만~200만 b/d의 잉여생산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원유공급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산유량 950만 b/d(최대 1,100만 b/d)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이며, 사우디 정부는 원유수요가 더욱 늘어날 경우 생산량을 1,500만 b/d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유전 개발은 Qatif, Haradh, Khursaniya, Shaybah, Khurays 유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Qatif⁸⁾

5)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상류부문(Upstream)은 유전탐사, 채굴, 석유화학제품 생산 등을, 하류부문(Downstream)은 정유, 마케팅, 수송, 유통 등을 의미함.

6) OPEC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리비아, 알제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단, 이라크는 생산쿼터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7) 사우디는 세계 최대 원유매장량, 생산량,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 중 일시적으로 러시아에 생산량에서 추월당한 바 있음.

8) 사우디는 동 유전의 수익을 바레인과 배분하고 있음.

〈표 3〉

최근 사우디의 주요 유전 개발 현황

단위: 만 b/d, 억 달러

유 전	신규 공급량	개발비용	가동 시기
Safah, Qatif	65	40	2004년부터 가동중
Haradh	30	28	2006년 예정
Khursaniya	50	30	2007년 예정
Shaybah, Nuayyim	30	30	2008년 예정
Khurays	120	50	2009년 예정
합 계	295	178	

자료: BusinessWeek, Aramco.

유전은 2004년부터 가동되고 있고 여타 유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인프라 개발에는 1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Haradh 유전에서는 2006년 초부터 종전보다 30만 b/d 증가한 총 90만 b/d의 경질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Khursaniya 유전은 걸프 만의 Jbail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50만 b/d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Shaybah 유전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57억 배럴의 경질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유전에 이미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1998년부터 50만 b/d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투자효율이 높아 2008년까지 30만 b/d를 증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50억 달러가 투자되는 Khurays 유전은 2009년부터 경질유 120만 b/d를 생산할 예정이다.

신규유전 개발, 정치·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신규유전의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산유량 확대는 국제유가의 안정, 국제사회에서의 사우디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청년 실업 문제⁹⁾를 경감하고 서민층의 빈곤을 타파하는 등 사우디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8월에는 23년간 사우디를 통치하였던 Fahd 국왕이 사망하고 왕세제인 Abdullah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Abdullah 신임 국왕은 전 국왕의 건강이 악화된 1995년부터 왕실 내 부패척결과 외국인투자법 제정 등 주요 정치·경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동국이 적극적으로 원유증산에 나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 신임 국왕의 안정적 정국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 회 원】

9) 사우디의 실업률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